

# QR코드·안심번호·전화출입명부로 개인정보 지켜요

## 코로나 확진자 파악 위한 '출입명부' 이름·거주지·전화번호 등 노출 불안 스마트폰 활용 안전하게 명부 작성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출입명부' 쓰기,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민은 크다. 특히 수기로 작성한 명부는 이름, 거주지,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탓에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하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똑똑하게 명부를 작성하려면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된다. QR코

드, 개인안심번호, 전화출입명부 등으로 간단하고 안전하게 출입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QR코드는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진 일종의 바코드다. QR코드에는 개인 정보가 암호화된 채 기록돼 있는데, 이 코드를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카메라)에 보여주면 자동으로 출입자와 출입 시각이 기록된다.

QR코드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

카카오 앱을 이용할 땐, 먼저 앱을 실행한 후, 하단에 왼쪽 세 번째 버튼인 '#' 탭을 선택한다. 이후 상단 왼쪽 첫 번째 버튼인 '코로나19'를 선택하고, 화면 중간의 'QR코드체크인'을 선택한다.

네이버 앱 검색창에 '전자출입명부'를 검색해도 된다. 검색 결과에서 '내 QR코드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QR코드 발급화면으로 즉시 연결된다.

패스 앱은 앱 실행 이후 로그인(PIN번호, 지문, 홍채 등)을 한 뒤, 'QR출입증'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후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약관을 읽고, 동의할 경우 '동의 후 QR생성' 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수기 작성을 해야 할 경우, '개인 안심번호'를 활용하면 안전하다. 개인 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예컨대 '가12나34' 식으로 생성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개인안심번호를 이용해 수

기 명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명부에 전화번호를 적는 대신 개인 안심번호를 적어도 무방하다.

개인 안심번호는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QR코드 하단에 적혀 있다. 개인 안심번호는 최초 1회 발급 한 뒤에는 똑같은 번호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므로, QR코드를 생성할 때 기억해 두면 편리하다.

QR코드·개인 안심번호 발급이 모두 어렵다면, 전화 출입명부를 활용할 수 있다. 전화 출입명부는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출입 인증 전화를 받기만 하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전화 출입명부

'14대표번호'를 지자체뿐 아니라 일반 기업·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처를 확대했다. '14대표번호'는 '14'로 시작하는 6자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된다. 번호는 각 시·군·구마다 다르며, 통화료는 무료다.

KT가 지난 2020년 9월 시작한 '콜체크인'도 이용할 수 있다. 콜체크인은 '080' 번호로 시작하며, 마찬가지로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자의 전화번호와 방문일시가 자동으로 기록된다.

KT는 최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비롯한 전국 9곳의 야구장에 콜체크인 출입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계란 껍데기와 나노기술 융합해 뼈 재생 치료”

### 전남대 연구팀, 생체소재부품 개발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계란 껍데기와 나노기술을 융합, 뼈를 재생시키는 생체소재부품을 개발했다. 27일 전남대에 따르면 김장호(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윤귀덕(보철학교실) 교수연구팀은 계란 난각막을 코팅한 나노 지지체가 뼈 재생을 유효하게 촉진시킬 수 있음을 동물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난각막은 계란 껍데기와 흰자 사이의 얇은 막으로, 연구팀은 이를 녹여 나노 지지체에 코팅했다. 지지체는 세포와 세포 사이를 잇는 일종의 '접착제'로, 인공적으로 만든 세포외기질(ECM)이다. 김장호 교수는 “나노기술을 활용해 버려지는 농

업부산물인 계란껍데기를 뼈 재생 촉진에 필요한 의료용 소재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연구결과로 인해 신의료기기 등 새로운 바이오산업화 제품개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ARC)의 농업생산무인자동화연구센터 및 BK21 4단계 IT-Bio융합시스템농업교육연구단 지원으로 수행했다. 권용현, 김다운 학생(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이 주 저자로 참여했다.

연구결과는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최신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됐으며, 미국 뉴욕에서 발행하는 The Academic Times의 특별기사로도 소개됐다.

/유연재 기자 yjyou@



## “빛 없는 동굴생활, 40일이 30년 같았다”

### 프랑스인 15명, 인간 적응력 시험...수면 패턴·행동 반응 살펴

인간이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시계조차 없이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지하 동굴 속에서 한 달여 넘게 격리 생활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

프랑스 남서부 퐁브리브 지하 동굴에서 남녀 15명이 외부와 완전히 끊어진 생활을 하다가 지난 24일(현지시간) 40일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다. <사진>

어둠에 적응한 시력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 선글라스를 끼고 햇빛을 다시 본 이들은 주변에서 쏟아지는 박수를 받으면 밝게 웃었지만 피곤한 표정을 감출 수는 없었다고 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인간적응 연구소'(HAI)가 생활 환경의 시간과 공간 틀이 깨졌을 때 인간 적응력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딥 타임'(Deep Time)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과학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동굴 생활을 했다.

퐁브리브 지하 동굴의 섭씨 12도, 습도 95% 환경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전기는 자전거 페달을 돌려 얻고, 물은 45m 지하에서 길어다 썼다. 친지를 비롯한 외부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긴 채 시계마저 없어 생체 리듬에 맞춰 몸이 시키는 대로 잠을 자고 끼니를 해결했다.

예견된 대로 참가자들은 시간 감각을 잃어버

렸는데, 한 참가자는 동굴 생활을 한 지 23일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HAI 창립자로 이번 과학 실험에 직접 참여해 동굴 생활을 한 탐험가 크리스티안 클로는 “40일 만에 동굴 밖으로 나왔지만 머릿속에서는 30년 전에 동굴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수학 교사이자 형제 강사인 조항 프랑수아(37)는 동굴 안에서 체력단련을 위해 10km씩 뛰기도 했는데 가끔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본능적인 충동”이 일기도 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27~50세 연령대로, 40일 간의 동굴 생활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하지만 참가자의 3분의 2는 동굴 내에서 하던 작업을 마치기 위해 며칠 더 동굴에서 생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시간 감각을 잃은 채 동굴 생활을 했으며, 동굴 밖으로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 23일에야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연구팀은 첨단 센서를 통해 동굴 생활 중 참가자들의 수면 패턴과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반응 등을 살펴봤다.

/연합뉴스

## 발급 6분 7초→1분4초

## 이용 3분17초→26초

### 공인인증서 폐지로 전자서명 간소화

공인인증서에 부여해오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다양한 간편인증이 도입되면서 전자서명 발급·이용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6일 “모바일 앱·지문 등을 활용한 간편인증 및 비대면 신원 확인제 도입으로 신(新)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및 이용 절차·시간이 대폭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제고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전자서명 발급에는 총 9단계에 6분7초, 이용에 9단계 3분17초가 걸렸지만, 간소화 이후 각각 6단계 1분4초, 3단계 26초로 줄었다는 것이다.

박정열 KISA 차세대인증팀장은 “주요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과 간편인증서 방식을 비교해 테스트해보니 발급이나 이용 모두 상당 시간과 절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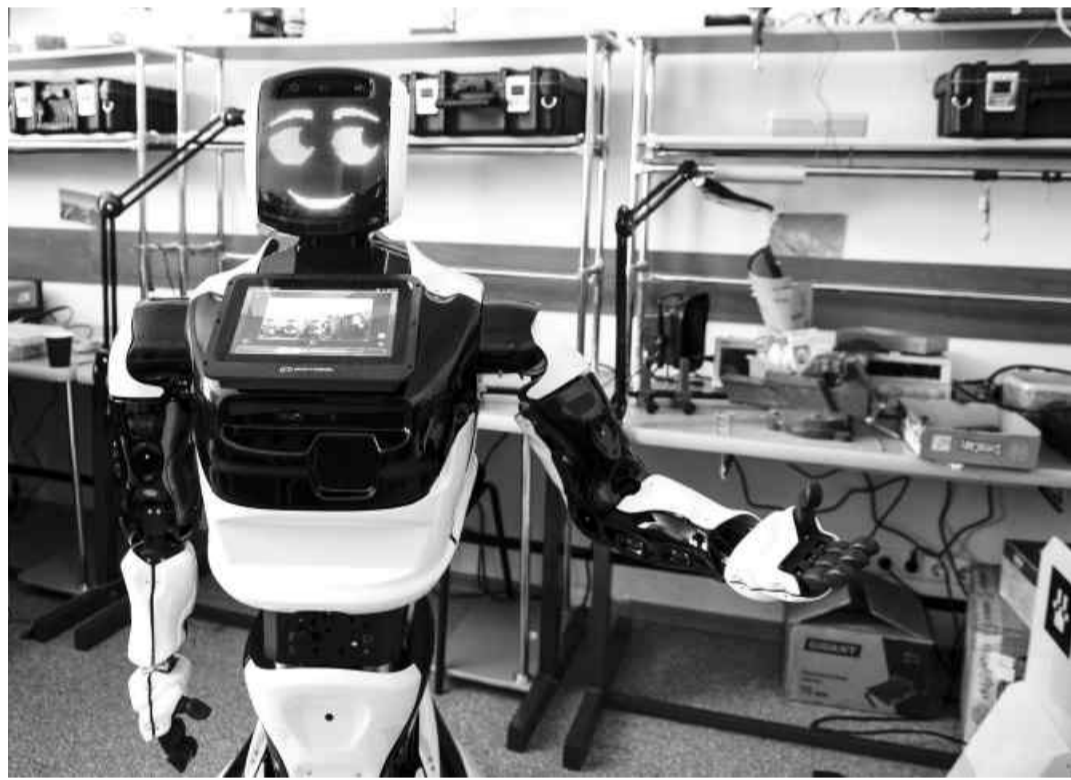
공인인증 위주의 독점시장 재편을 통한 자율경쟁 체계 구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의 적용 사이트, 인증서 발급건수 증가에 따른 신규 시장이 창출됐다고 KISA는 전했다. 법 통과 이후 신기술을 포함한 인증서는 8520만건에서 1억180만건으로 20% 늘었고,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 사이트 수는 30개에서 54개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및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활성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연말정산·정부 24·국민신문고 등 사이트에 카카오·NHN페이코·패스 등 간편 인증 서비스가 도입됐다.

KISA는 개정된 전자서명 제도도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운영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간편 전자서명인증 적용 현황 및 국민 만족도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액티브X 방식의 옛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유지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설치 전자서명 이용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안내부터 컨설턴트까지 '프로모봇 V.4'이 척척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 서비스 로봇 제조사인 러시아 '프로모봇'사가 최근 선보인 로봇 '프로모봇 V.4'. 러시아 톨스크 폴리텍 대학교에서 기술을 지원한 프로모봇 V.4는 안내원부터 고객 컨설턴트, 관리자까지 다양한 임무를 맡을 수 있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